

# 이의 신청서

사업명 : 값골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422-3번지 (가락골길 45)

사업자 : 충청남도 공주시장

이의 신청자

성명 : 이 기성

생년월일 : 1966.06.23 , 연락처 : 010 5409 7723

주소 :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422-3 (가락골길 45)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락골길 하천정비사업관련으로 너무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고있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 합니다 .

1, 저는 현재 땅을 사업장으로 구매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건 물을 짓고 있던중 저희 땅앞으로 도로가 넓어 진다는 말을 듣고 시청에 확인해보니 시청 담당 공무원이 지금 주민들과 협의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저는 도로가 넓어지는것에 반대 하지않았고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저는 지금 담장을 쳐야 하는데 어디까지 제땅이 수용이 되는것인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은 현재협의 중이고 협의가 끝나면 알려 주겠다고 이런 반복을 수차례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서 저는 마당에 물건을 야적해야 하고 담장이 있어야 물건을 갖다 놓을수 있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말했고 담당 공무원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 피해보상도 나가니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믿고 저는 외부에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에 와서 담장을 못친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말만 믿었다가 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 합니다

2, 현재 제 땅 앞으로에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사를 진행중  
에 있으며 공사로 많은 먼지와 건물 바닥에 균열이 갔습니다 ,  
이역시 공사로 인한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  
면 대형 차량이 지나갈 때 진동이 느껴지며 제땅 바로옆에 포크레인  
뿌레카 작업으로 인하여 건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뿌레카 작업  
이후 그대로 방치하여 도로의 지반이 더 약해져 저의 건물에 오는 진  
동이 심해져 바닥 균열이 심화 됐 있습니다,

이에대한 진동과 소음 측정을 요구 하여 시청에서 측정을 나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테스트를 하더군요 ,  
이미 예전에 작업이 이루어진곳에 대고 뿌레카 작업을 하더군요  
그것도 도로 하천 바깥쪽으로 이미 깨진 것을 그위에 작업하는게  
진동 확인을 하는게 맞나요 ?

제가 영상을 저장해 다른곳에 물어보니 보는 사람 마다 웃더군요 저  
게 지금 뭐하는거냐고  
소리측정 역시 형식 적으로 거리를 멀리두고 포크레인은 뿌레카 작동  
을 살살 해가면서  
참으로 정부에서 하는 확인 철차라는게 이런것이엇구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3, 소음 진동 테스트를 진행 하는데 왜 동네 주민들을 불러와서  
제게 땅을 왜안파냐고 항의하듯 이야기하고 그와중에 소하천 공사  
를 담당 하는 건설회사 사장이 저를 이동네에서 쫓아내라고 소리를  
치고 예전에도 맞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동네 주민들과 몰려와  
서 제에게 욕을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

이 같이 몰려와서 저에게 당을 팔라고 강요 하고  
시청 감독관과 담당자들은 강건너 불보듯 구경하고  
공주시청에서 시행하는 시공사가 저에게 이동네에서 쫓아 내겠다고  
합니다

공주시청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관행 입니까?  
공권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인가요 ?  
동네주민들을 이용해 사람을 이렇게 압박해도 되나요 ?  
설상 주민들이 저렇게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옆에서  
상황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어떻게 주민들이 제 땅앞에 진동과 소음 테스트 측정하는 것을 알고  
단체로 와서 저에게 항의를 할까요 ??  
공주시청에서 저런것도 주민에게 통보하고 하나요 ?  
제가 지금 정신적인 압박 너무커서 가끔 밤에 자다가 벌떡 벌떡 일  
어납니다

4 , 저는 저땅을 구매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려 한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땅을 구매해서 사용도 못하고 너무 오랜시  
간 사용도 못하면 그것은 저에게는 손해 아닙니까?

땅의 보상금액 역시 제가 구매한금액도 못미치며 추가로 그땅에 공  
사비용과 이자 비용도 안나옵니다

제가 손해를 보는것도 어느정도이지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피해  
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협박하고 욕설을 하고 저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상응하는 법으로 제가 소송을 할것이며  
보상금액은 너무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므로 재 감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진동과 소음 으로 인한 cd고 바닥의 균열 문제도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할것입니다

현장을 훼손하지말고 현재 상태로 보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저의 땅에 맞닿는 도로의  
부분은 공사를 완전 중단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피해를 원치 않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동네 주민들이 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저를 찾아 오는 일이 없  
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앞뒤 없이 적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주시고 ,

- 1, 땅의 보상 금액은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 입니다
- 2, 건물의 바닥 균열문제는 재 확인을 할것입니다
- 3, 저에게 협박을 하고 욕보이게 한 사람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것 입니다
- 4, 주민들을 선동하여 저에게 강압을 하지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 04 16

이 기성

